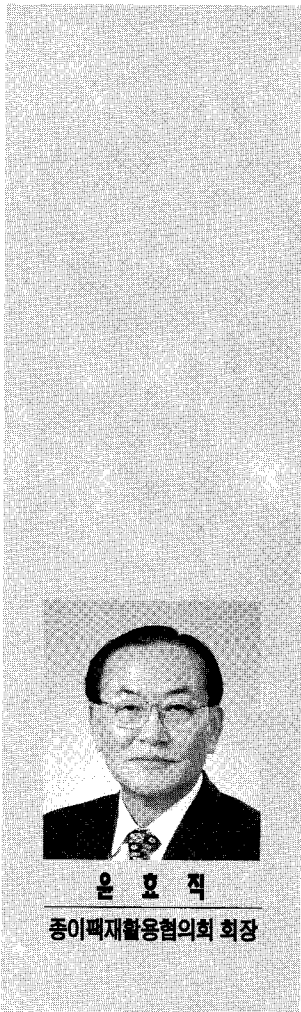


우유포장용기를 유리병으로 환원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The alternatives milke packaging container are carton pack and glass bottle



은 호 직
종이폐재활용협의회 회장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에서 현재 우유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종이팩은 1회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외화낭비이며 폐우유팩은 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유용기를 유리병으로 환원하자는 운동을 펴고 있는데 이는 아주 불합리한 생각이며 또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우유가 대중화할 때 포장용기를 전량 유리병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종이팩의 품질 우수성으로 인해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 유리병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는 종이팩(96%), 플라스틱용기(4%)로 전량 대체된 상황이다.

이는 종이팩이 유리병보다 장점이 많아 소비자가 선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일본(87%)을 비롯한 독일(87%), 프랑스(75%), 이탈리아(93%), 덴마크(90%)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종이팩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영국은 플라스틱용기(45%)와 유리병(33%)을, 미국은 플라스틱용기(78%), 캐나다는 종이팩(43%)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종이팩과 플라스틱용기가 우유 포장용기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이팩은 가장 고품질의 펄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제지공장에서 화장지로 재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유팩량은 연간 5만 3천여톤

재활용의 개념을 바꿔 효율적 이용에 초점 맞춰야

(36억개)으로 이 중에서 회수되어 화장지로 재
생되는 양은 공식 통계로 약 만 9천여톤(약
36%)이며 그 외 일반 종이나 박스 등으로 재활
용되고 있는 것은 통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2차 가공품으로 재활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쓰레기로 폐기처분되는 양은 그리 많지는
않다.

폐우유팩은 우유 유통 과정상 체계적으로 회
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지 않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협조만 잘해 준다면 재활용률
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현재의 재활용량(1만 9천톤)도 학교급식이
나 군급식용과 일부 종교단체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회수한 것이며, 일
반 가정이나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소
비되는 것은 대부분이 일반쓰레기로 폐기처분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환경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이팩 용기를 유리병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현
실적으로 대단한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유리병은 종이팩보다 약 25배(200ml 기
준)가 더 무겁고 유통체계상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리병의 회수률이 우유팩의 회수률보다 높다

는 보장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재활용의 개념은
예를 들어 우유포장용기로 사용한 유리병을 다
시 우유포장용기로 사용해야 재활용한 것으로
보고 우유팩은 우유팩으로 다시 쓰이지 않기 때
문에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재활용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폐우유팩을 회수해 다시 2차 가공품인 휴지나
박스로 생산하는 것도 훌륭한 재활용의 하나이다.

또한 일부 학교급식용과 군급식용(총량의 10
~15%)만을 유리병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신규
설비가 있어야 하고 세척시설, 보관시설 등도 마
련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게 된
다.(20% 대체시 약 800억 소요 발생)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한국자원재활용연구
원에서 2000년 2월 공동 연구 발표한 “우유포장
용기의 환경성·품질안전성·위생성·경제성
비교연구”의 논문에 보면 종이팩이 유리병보다
환경, 안전, 위생, 경제성 등 모두에서 비교 우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
유용기를 종이팩에서 유리병으로 대체하자는 것
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